

21세기 기업세계화의 장기비전 및 전략(I)

1. 기업 세계화의 전망과 한국기업의 현실

1)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질서의 형성

① 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와 무한경쟁시대의 도래

1970년대 이후의 자본과 생산의 국제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시작된 경제의 범세계화는 1990년대 들어 더욱 급속히 진전되어 세계를 국경없는 지구촌경제로 단일화시키고 있다.

1983년부터 1989년 사이 연평균 증가율 기준으로 할 때, 세계 해외직접 투자 증가율은 28.9%에 달하여, 세계 수출증가율 9.4% 및 세계 GDP증가율 7.8%의 3~4배에 가까운 놀라운 속도로 팽창하

였다.

이에, 세계 각국기업의 해외생산규모는 4.4조 달러로서 세계 무역규모 2.5조 달러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한편 GATT시대가 세계시장 탈취를 위한 제한적 경쟁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Post-UR시대는 무한경쟁(Global Competition)시대임은 분명하다.

세계 각국은 탈이념하에서 경제적 실리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전면적인 경제전쟁 시대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과거에는 정부보호에 의해 각 나라가 산업내에 최소 몇개의 국

민기업(National Champions)을 육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의 범세계화가 가속되어 각국의 기업이 세계와의 무한경쟁에 직접 노출되며 자동차, 반도체, 전자 등 주요산업에서 몇개의 세계기업(World Champions)만이 살아남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기업도 세계화를 위한 자기변신노력(Reengineering, Restructuring)을 하지 않으면 무한경쟁시대의 승리자가 될 수 없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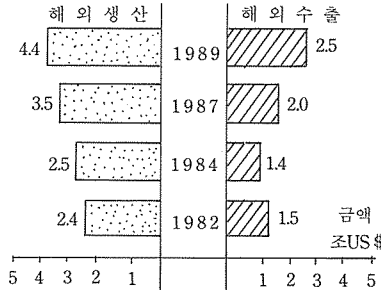
② 기술혁신·확산의 가속과 높아지는 기술장벽

과거가 「비교우위시대」였다면 다가오는 지구촌경제는 해당산업 분야에서 절대우위를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절대우위시대」가 도래했는데 이 절대우위를 결정하는 것이 기술력이다.

기술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각국은 치열한 경쟁을 하고 기술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이 잠재적 경쟁상대자인 한국에 대한 기술이전 기피 및 지적재산권 분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③ WTO체제의 출범과 지역주의

세계기업의 해외생산과 세계수출의 변화추이 (단위: 조US\$)



주: 해외생산이라함은 다국적기업의 전세계 해외자회사의 매출액을 합친 것임.
 자료: UN, "world Investment Report, 1992" p.55

편집자 주) 본고는 지난 12월 14일 기업세계화지원 기획단이 개최한 전략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이에 발표내용을 요약 발췌 게재함을 밝히며, (1), (2)회로 연재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 상존

WTO체제의 출범으로 각국의 투자 및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자본, 서비스, 기술, 농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역자유화가 예상되며 아울러, 그간 GATT밖에 있었던 쌍무적 자유무역협정, MFA 등이 WTO 체제에 흡수됨으로써 국제경쟁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상설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분쟁해결의 신속성과 집행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미에서 NAFTA, 그리고 유럽에서 EU와 같이 지역주의가 태동하여 역외국에 대한 보호주의의 우려도 있으나, WTO체제의 보강(노동, 환경정책 등)을 통하여 세계무역의 안정적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WTO체제와 지역주의로 해외투자에 관한 각종 장벽과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향후 해외투자가 더욱 활성화 되고 각국 기업의 세계화가 가속될 전망이다.

2) 기업세계화의 전개 과정과 선진기업의 세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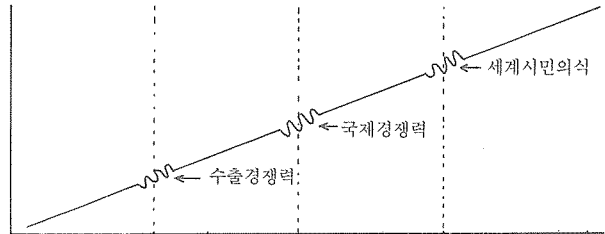
① 기업 세계화의 4단계

일반적으로 기업은 국내기업-수출기업-국제기업-세계기업으로 발전하여 나가는데 우리나라 기업의 발전단계는 국내기업에서 국제기업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세계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동 보고서에서 다루는 기업세계화는 궁극적으로 세계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는 국제기업화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② 세계 주요산업의 세계화

기업 세계화의 4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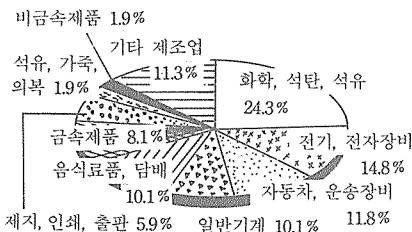


	국내기업	수출기업	국제기업	세계기업
해 외 생 산	없 음	수 출	해외생산	범세계적생산, 자원조달 및 판매
해 외 거 점	없 음	영업거점	생산거점	복합화거점 (R&D센터 등)
중 심 과 제 경 쟁 우 위	국내경쟁 보호된 국내시장	해외시장개척 노동, 자본 상의 비교우위	해외생산거점마련 기술적비교우위	범세계 최적화 정보, 지식 (범세계 네트워크)
경 영 방 식	본사중심	본사중심	본사중심 (부분현지화)	현지화/통합화
정 부 역 할	시장보호	수출지원	해외진출지원	국가이미지관리 개도국원조 등

오늘날 세계화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어온 산업은 전자(컴퓨터), 자동차, 화학·의약, 일반기계 분야이다.

주요산업에서 100대 세계기업의 국내자산과 해외자산 비중을 살펴보면, 자동차산업의 경우 총 자산규모는 8,290억 달러에 해외 자산 규모가 6,150억 달러로 국내 자산규모의 2.9배에 해당하며 전

주요산업별 세계화정도
-세계 해외투자의 산업별 분포-



자료 : OECD,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STATISTICS YEARBOOK, 1994.

자산업은 총자산 규모 7,710억 달러 중 해외자산 규모가 4,660억 달러로 국내자산 3,050억 달러의 1.5배에 달하고 있다.

③ 세계기업의 개황

기업의 성쇠는 국가와 운명을 같이 한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경쟁력이 강화되면 세계기업들이 다수 출현하고 해외사업도 확대된다.

지난 30년간의 세계 100대 기업의 변천을 보면 미국기업의 쇠퇴가 두드러지며 역으로 일본기업이 크게 늘어났다.

오늘날 세계기업은 본국의 GNP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증가하고 있다.

④ 세계기업의 조건

세계 100대기업증 미·일 비중 추이 (단위: 개)

		1960	1970	1980	1993	증감(60~93)
미	국	69	63	43	32	△37
일	본	3	8	12	23	30

국별 대표기업 매출과 GNP 비교 (억달러)

		대표기업의 매출(A)	GNP(B)	(A/B, %)
미	국	GM 1,336	63,780	2.1
일	본	도요다 853	36,961	2.3
독	일	벤츠 591	17,060	3.5
스	위	스네슬레 389	2,509	15.5
네	덜	란드필립스 317	3,196	9.9
한	국	삼성전자 102	2,945	3.5

주: 각국 제조업중 최대기업 기준

주요 제품별 대표적 세계기업

업종	미국	일본	유럽	한국
철강	U S X	신일본제철		포철
화학	학 듀 풍		뤼 스트	
자동차	G M	도요다	벤츠	
조선		미쯔비시중공업		현대중공업
항공기	보잉		에어버스	
통신통계	신모토롤라	N E C	에릭슨	
반도체	I B M	후지쯔		
소프트웨어	체인텔	N E C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세계기업은 특정 사업영역에서 세계시장의 일정비율 이상을 점유하고 기술과 마케팅에 기반을 둔 강한 경쟁력을 보유해야만 한다.

업종별로 보면 한국기업은 철강의 포철, 조선의 현대중공업, 반도체의 삼성전자 정도가 규모 및 경쟁력 면에서 세계기업에 진입하고 있다.

세계기업은 범세계 차원에서 통합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전세계를 연결하는 정보물류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세계와 더불어 번영하는 현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야 한다.

3) 한국기업의 세계화

① 우리나라 및 기업의 체계화 수준

세계화를 해외생산·수출 등의 지표로 분석해 볼 때 우리나라 산업중 국제화가 가장 많이 되어있는 분야는 전자(가전), 섬유, 신발, 자동차, 철강의 순이다.

그러나, 전략상의 차이를 보면 섬유, 신발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소극적·방어적으로 해외투자를 하는 반면, 전자(가전)는 비교적 세계화 전략을 세워 북미, 유럽, 동남아 등에 생산거점을 마련하

고, 이미 일부기업은 지역본사까지 설치하고 있다.

자동차는 이제부터 해외진출이 가속되어 국내업체가 중국, 루마니아, 인도, 카자흐스탄 등 지역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다.

대기업이 수출기업에서 국제기업으로 변신한데 비해 중소기업은 대부분 국내기업과 수출기업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 22대 대기업의 총매출 대비 해외생산비중은 8.7%로 동비중이, 10% 이상이 2개사, 5%~10% 이상이 2개사, 1%~5% 미만이 13개사 등이며, 해외생산이 없는 기업도 5개사나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섬유, 신발, 전자부품 등에서 일부기업이 국제기업단계에 이르렀으나, 그나마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세계화 전략이 아닌 방어적인 것이다.

따라서 WTO 체제에 대비해 효율적인 기업세계화 전략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국내시장개방으로 「국내기업」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일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일대 타격이 예상된다.

② 한국 기업세계화의 과제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아직까지 GNP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부진한 상태인데 영국의 경우 동비율이 24.8%에 이르며 미국, 일본, 독일 모두 GNP에 대비한 해외투자비중이 7~10%이다.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단계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이며 선진국의 수입규제 회피 또는 개도국의 낮은 임금을 활용하기 위한 생산거점의 이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세계화 지표

	미 국	일 본	독 일	한 국	싱가포르
1. 국제화					
- 대외의존도(%)	21.0	19.4	52.3	60.3	358.8
- 수출시장 다변화(%)	39.9	40.8	31.1	47.7	41.9
- 관광수입/GDP(%)	0.9	0.1	0.6	1.1	11.4
- 국내시장개방	7.3	4.7	8.3	3.8	8.1
- 외국인투자자유화	8.3	5.9	8.9	4.1	8.0
- 전략적 제휴	7.9	6.8	7.9	5.0	8.1
- 외국인 평등대우	6.1	5.8	4.0	4.2	7.2
- 외국문화 개방	6.8	6.3	6.8	4.2	7.6
2. 과학·기술					
- R&D지출/GNP(%)	2.6	3.0	2.5	1.8	0.9
- R&D 종사자 (인구 1000명당)	8.2	14.1	14.1	5.3	3.9
3. 인 력					
- 노동생산성(\$/시간)	27.5	35.1	30.0	15.9	9.5
- 기능인력자원	6.0	6.5	7.2	4.8	5.7
- 1인당교육비(1000\$)	1.1	1.1	0.8	0.3	0.3
4. 정부부문					
- 정부통제	2.6	5.1	2.3	6.5	2.3
- 행정의 투명성	5.3	3.8	4.8	3.5	6.0
5. 자원이용의 효율성	10.0	8.8	8.9	3.7	7.1
6. 기업경영(c)					
- 경영혁신지수	7.0	5.6	5.7	5.5	6.3
- 국제문화이해지수	4.7	5.0	6.0	3.6	7.7
- 국제경험지수	5.2	5.5	6.3	5.3	6.8
7. 세계 100대기업수	32	23	12	0	0

자료 : UN, World Bank 등

주 : 별도 단위표시가 없는 항목은 10점 만점임

[우리기업의 경쟁우위요소]

[강 함]

[약 함]

생산기술의 보유	특허등 기술상 우위
부품 및 반제품 조달능력	브랜드 이미지
현지판매 경험	제품개발 능력

자료 : 산업연구원, 실태조사, 1993.

'93년말 우리나라 해외투자중 북미지역과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 대한 투자가 전체 해외투자중 75.5%를 차지하며 업종별로 보면 섬

유의복, 조립금속 등 저임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노동집약적 업종의 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자기상표 수출비중은 91년 45.0%에서 92년 47.4%, 93년 49.1%, 94년 51.7%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지만 아직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대에 머물고 있다.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의 일부산업에서 선진국 기업들과 전략적제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기업 특유의 경쟁

우위요소가 부족하여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전략적 제휴를 단순한 기술도입 수단으로만 간주하여 조달, 생산, 판매 등 광범위한 제휴관계로 발전시키고 있지는 못한 형편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공장의 경우 부품을 대부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지역별 현지부품 의무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현지부품의 사용확대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국내 부품업체와의 동반진출 등 협력관계가 부족하여 향후 원활한 현지조달이 곤란하다.

낮은 수준의 현지인 채용 비율인데 기능직 및 일부 전문직의 경우는 현지인의 활용도가 높으나 경영층의 경우는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현지 경영층 채용은 18% 수준에 불과)

또한 현지법인의 경영자출권이 미약하여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본사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소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연구소를 설립해오고 있으며, 1993년 6월말 현재 미국 5개, 일본 3개, 독일과 러시아에 각 1개로 총 10개 연구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양적으로, 미미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그 기능도 아직은 해외기술정보 수집·제공 등 국내 모기업 및 연구소의 기능보완적 역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③ 한국 중소기업의 세계화 현황 및 애로사항

1987년까지는 대기업 위주로 이

루어져 왔으나 1988년을 기점으로 중소기업에 의한 해외투자가 급속히 증가했으나 건당 투자 금액도 '87년의 2만 달러 수준에서 '92년에는 7만 달러 수준으로 3배나 증가했다.

한국중소기업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으로는 해외정보 부족 즉 사전 해외시장 조사의 어려움, 현지 투자관련 법규나 지원조치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을 들 수 있는데 우수인력 확보상의 어려움, 낮은 신용도로 인한 현지금융 조달상의 애로사항, 현지파트너 선정상의 애로점 등으로 나타났다.

2. 우리기업 세계화의 장애요인

1) 내생적 장애요인-국내제도 등에 의한 요인

① 낮은 국가이미지

좋은 국가 이미지가 좋은 기업 이미지와 제품 이미지로 연결된다는 점이 기업세계화의 중요한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인식하는 우리의 국가 이미지는 낙후되고 왜곡되어 있다.

외국인이 본 우리나라의 국가 존경도는 일본 뿐만 아니라, 중국에 비해서도 뒤떨어져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도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평

가된다.

통상협력국으로서의 우리 이미지도 매우 나빠 “제2의 일본”, “배타적 보호주의”라는 이미지가 널리 퍼져 있으며 투자대상국으로서의 우리 이미지도 대외적으로 왜곡되어 있다.

또한,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는 해외에서의 노사분규가 우리의 대외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

이와같이 낮은 국가 이미지 때문에 한국산 제품의 이미지도 매우 취약하여 해외에서 품질수준에 비해 20~30% 싸게 팔리고 있다. 반면, 일본제품은 20~30%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② 異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값싼 노동력 활용을 목적으로 진출한 중국, 인니, 스리랑카 등 동남아에 진출한 신발, 섬유 등 노동집약형 우리업체에서 노사분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우리기업 세계화의 새로운 장애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지국의 노동단체들은 ILO(국제노동기구), IFTU(국제자유노련)등 국제 노동단체와 연대하여 우리기업의 노조결정 방해, 국제노동기준 위반 등을 국제적으로 규탄하면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독 우리기업에게

노사분규가 빈발하는 이유는 우리 기업이 현지의 이문화, 현지 노동법·관습 또는 사회주의 국가특성 등에 대한 사전지식없이 진출하고 단기적 안목으로 투자금의 조기회수에 급급한데서 기인한다.

③ 해외정보지원 체제의 비효율성

해외정보 서비스체제의 비효율성을 들 수 있는데 해외투자 정보 지원을 맡고 있는 주요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산업기술정보원 등이나 각 기관간에 전문화나 정보유통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국내의 여러 기관이 관련정보의 수집·축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의 경우에도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공통의 유통망을 통한 DB의 공동활용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산업협력에 대한 정보지원체제가 미흡하며 한편 산업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 정보유통경로로서 테크노마트(Techno-Mart)는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보통이어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제공 체제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④ 해외투자 관리제도의 문제점

가. 해외투자제도의 문제점

형식적인 해외투자심의위원회 기능과 해외투자 제한업종의 범위 과다 및 규정이 불분명하다. 현재 투자제한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투자의 제한범위가 너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고, 제한업종의 범위도 구체적이지 못하고 불분명한

외국인의 한국 및 주요 경쟁국에 대한 인식 비교

국 명	국 가 존 경 도		경제적 발전 정도	
	미국표본	독일표본	미국표본	독일표본
일 본	5.3	6.0	5.3	6.6
한 국	4.5	3.7	4.4	4.1
대 만	4.5	3.8	4.6	4.1
중 국	4.7	4.0	4.4	4.4

주) 1(낮음)-7(높음)

것이다.

또한 이익배당을 겨냥한 해외투자가 차단되어 있으며 해외 Venture Company에 대한 투자도 불가능하다.

투자자금은 반드시 국내에서 송금토록 되어 있는 바, 해외지점을 통해서도 잉여자금 또는 현지 금융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허가 및 절차는 미화 1,000만달러 해외투자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나 사전적인 신고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과거의 '허가'와 차이가 거의 없다.

현물출자시 해당자금은 해외투자 대출자금 대상으로 되지 않는 실정이며, 현지법인 명의로 해외투자에 대한 연불 제공의 경우에 국내 금융기관 투자자금 수혜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나. 해외투자 사후관리제도상 문제점

해외투자 신고수리시 10여개의 보고의무를 부과하나 현실성을 결여한 내용이 많아 기업에게 부담만 주며 그 결과도 공개하여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⑤ 해외투자 지원제도의 문제점

담보물의 종류가 국내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등 물적 담보 위주이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액도 대부분의 자기자본에 비례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금액은 제한적이다.

연대보증대출제도가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자금력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방식에 의한 신용 대출은 어려운 실정

이다.

해외투자 손실 준비금의 일률적 적용과 수출보험공사의 해외투자자에 대한 보험도 담보위험의 범위가 제약되어 있다.

⑥ 세계화 전문인력의 부족

10년 후인 2005년경에는 약 6~7만명의 세계화 전문인력(국제경영인력, 통상전문인력)이 부족할 전망이다.(수요 10여만명, 공급 3~4만명)

세계화 전문인력 공급부족 뿐만 아니라 자질면에서도 과거 수출기업때와는 다른 보다 다양하고 깊은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한데 현재의 교육·훈련체제로는 유능한 인력양성에 한계가 있다.

연수나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기업도 약 40%에 이르고 있으며, 연수를 실시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그 과정이 국내에서의 업무연수와 어학 교육에 그치고 있다.

⑦ 해외진출 기업간의 조직화 미흡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외진출기업의 모임이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친목단체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외국의 부당한 무역·투자조치 및 규제 등에 대해 우리 현지 기업들의 공동대응이 미흡하게 되고, 해외진출기업의 애로가 통상주무부처에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않아 통상협상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모임, 즉 Am Cham(미국), EC Cham(EC), 일본상공회의소(일

본) 등은 우리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워싱턴의 미국정부에 전달하여 우리나라에 통상압력을 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⑧ 해외진출 기업의 활동에 대한 경제분석 체제 미구축

국내기업의 생산, 고용, 수출입 활동에 대해선 광공업 센서스, 수출입통계 등을 통해 정기적인 분석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기업의 활동에 대해서는 앞서서와 같은 경제분석체제가 없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70년대부터 이러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96년 OECD 가입을 위해서도 이에 대한 분석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2) 외생적 장애요인

① 투자진출 제한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들은 보다 광범위하게 외국인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국민경제발전 요구에의 부합, 환경오염초래 위험방지 등 자외적인 외국인 투자 규제를 하고 있다.

② 외국인 투자지분 및 투자금액 제한

미국 등 선진국가들의 경우는 대부분 100% 외국인 투자 지분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외국인 투자지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3차산업부문(소매, 건설, 운수 등)에 대해 외국인 100% 단독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외국

인 투자지분을 관련 제품의 수출 비율과 연계시키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는 분야별로 외국인 투자 지분비율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는데 국영항공을 비롯한 운송분야는 25%까지, 증권·금융의 경우는 30%까지, 그리고 보험, 창고, 리스, 자동차 부품제조 등의 경우는 48%까지 외국인 투자지분을 인정하고 있다.

③ 현지부품 사용의무

미국은 외국기업에 대해 자국 부품을 사용토록 하는 강제규정은 없으나 Buy American법에 연방 및 주 또는 하부 행정기관이 물자를 구매할 시 미국산 원산지 부품이 최소한 50%이상인 물품만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도국들의 경우는 현지부품 사용을 직접 강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유인책과 현지부품 사용을 연계시키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자동차,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국산품 사용 가이드 라인이 있으며 국산 원자재비율이 제품가격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세액 공제율을 낮혀 주고 있다.

④ 수출이행 의무

강제적인 수출이행 의무는 없으나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외국인 투자업체들에게 일정비율 이상 수출을 할 경우 세제 혜택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주는 간접적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생산량의 80% 이상 수출시는 100% 지분을 허용하며, 생산량의 51~79% 수출시는 51%~100%까지, 생산량의 20~50% 수출시는 30~51%, 그리고 생산량의 20% 미만 수출시

는 30%까지만 지분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수출의무비율은 일반적으로 70%로 책정되어 있으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지역·업종별로 50%, 80%, 100%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다.

⑤ 과실송금 및 재투자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국투자자의 과실송금을 부가가치세 또는 과실송금제를 부과하는 선에서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으나 개도국의 경우 법적인 송금 보장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송금을 제한하고 있다.

⑥ 부동산 취득 및 사용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외국 투자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지 않거나 제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건축권, 개발권 및 사용권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만 허용하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도 외국인 투자 기업의 토지소유권은 인정되지 않고 토지사용권만을 허용하고 있다.

필리핀은 외국인의 참여지분이 40% 이하인 사업체만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태국도 외국인(외자비율 49% 초과기업)의 토지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투자장려기업에 한해 외자비율에 관계없이 토지 취득을 인정한다.

⑦ 금융

외국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겪는 금융상의 애로는 본국 또는 해외로부터 자금차입에 대한 규제 및 현지에서의 금융조달의 어려움 등 두가지로 나뉘어지며 호주는 부족한 현지금융을 보충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자금 차

입시 차입금 이자에 대해 10%를 원천과세(Withholding Tax)하고 있으며, 또한 본지점간 차입한도를 자기자본의 6배 범위내에서 제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주식의 51% 이상을 인도네시아측이 소유하거나 주식의 20% 이상을 자본시장에 공개하고 45% 이상을 인도네시아측이 보유하는 경우가 아니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국영은행이 국내기업에 대해 제공하는 저리융자를 허용치 않으며, 중국은 북경 소재 외자기업이 타지역 외국은행구좌 개설시 외환관리국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허가 기가 매우 어려워 기업이 자기자금을 마음대로 장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⑧ 세제

해외진출한 우리기업이 겪는 현지 세제상의 애로는 개도국에서는 주로 과중한 세금부담과 불명확한 조세제도, 선진국에서는 이전가격과 사회보장세 부담이다.

특히, 미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은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문제로 미조세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미국내 한국지·상사원들은 미국민연금법에 의해 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에 의해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

⑨ VISA문제

비자(VISA)와 관계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각국의 사정에 따른 까다로운 비자발급 절차 및 이로 인해 소요되는 장시간의 비자획득 소요기간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거주 외국인은 해외 출국시마다 재입국 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고,

주재원들의 경우 사우디 입국 후 노동비자(Working Visa) 및 IQMA(일종의 거주증명서)를 발급받아야 가족초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상 2개월 가량 가족없이 지내야 한다.

3 기업세계화의 비전과 추진 과제

1) 21세기 한국경제 및 기업 세계화의 모습

① 한국경제의 세계화 모습 가. 국제적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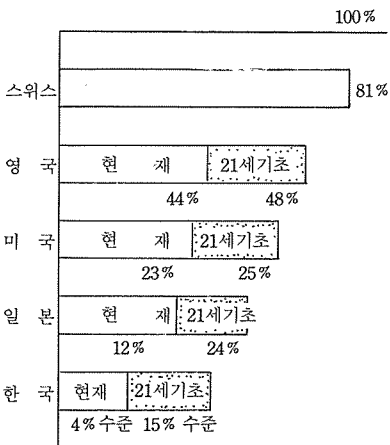
현재 21세기초(2005년경)

- 한국경제

중진국	선진권 진입
-----	--------

 (GNP규모)
- 한국수출 세계 15위 (3,287억불) 세계 10위권 (8,600억불)
- 세계 13위 (822억불) 세계 10위권 (2,100억불)

해외생산비중(GDP와 비교한 해외매출 규모)



나. 국민경제의 세계화

오늘날 GDP와 비교한 해외생산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스위스(18%), 영국(44%), 미국(23%), 일본(12%) 순이며 우리나라의 해외생산비중은 현재 약 4% 수준이나 21세기초에는 15% 수준으로 증가되어 오늘날 일본과 비슷하게 되었다.

기술 및 산업구조 고도화

	기술중진국	기술선진국
-R&D/GDP	0.73%	2.44%
-첨단기술산업생산(세계시장점유율)	501억불	3,297억불
	2.4%	5.4%

② 한국기업과 산업의 세계화

가.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계화 전망

21세기초(2005년경)에 가면 우리나라 대기업은 「국제기업」과 「세계기업」단계로 발전해야 할 것이며 시장개방과 “무한경쟁”으로 인해 향후 10년내 세계화하지 못하는 기업은 경쟁에서 탈락이 불가피하다.

21세기 초에 가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수출기업」과 「국제기업」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며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세계기업으로까지 도약이 가능하다.

이미 국내일부 중소기업(메디슨 전자, 영안모자 등)은 세계기업으로 도약기반을 마련했다.

오늘날 세계 100대 기업의 해외매출비중은 43.8%인데 우리나라 22대기업의 총매출대비 해외매출비중은 8.7%이다. 21세기초에 가면 우리나라의 동비중이 32.3%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100대기업중 한국기업은 아직 없으며(재벌기업 기준으로는 있음) 21세기에 가면 3~5개의 세계 100대기업 출현이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 총 73,000여개의 중소기업 중 해외투자를 한 업체는 1,000여개사로 전체 중소기업수의 1.5%에 불과하나 21세기초에 가면 동 비중이 6%로 높아져 1만여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예상된다.

나. 주요산업의 세계화(해외생산비중)

21세기초에 가면 자동차, 전자(가전), 화학 등 소위 세계화선도 산업에서 우리산업의 해외생산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세계자동차 산업의 세계화 정도를 총자산 대비 해외자산 기준으로 보면 74%이며 해외생산 기준으로 보면 40~45% 수준이다. 볼보(80%), 혼다(63%), 벤츠(61%) 등 주요기업의 해외 생산비중은 이미 60%를 넘고 있다.

세계 전자산업의 해외생산비중은 60%인데 우리나라의 동비중이 현재 8.7%로 아주 저조하다.

그러나, 21세기초에 가면 TV, VTR 등 가전분야에서 해외생산비중이 증가하여 58%에 이를 전망이다.

일본 가전산업의 경우 현재 해외생산비중이 60%인데 엔고가 지속될 경우 3년후에는 70%로 높아질 전망이다.

<2월호에 계속>